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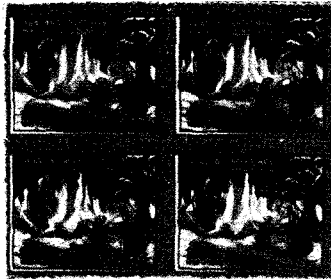
1935년 쌀의 도안자는 누구인가 ?

1935년에 발행된 쌀(널뛰기)의 도안자에 관한 외국의 모든 자료와 국내 초창기의 자료를 살펴보면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1990년 이후 국내에서는 고증을 거쳐 이를 바로 잡았으나 이에 대한 그간의 전말(顛末)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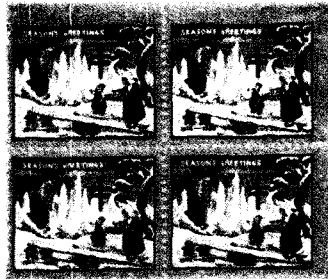
1935년의 쌀 도안

1935년의 쌀은 민속고유의 놀이인 '널뛰기'를 도안한 것으로 초판과 재판의 2종류가 존재한다. 초판과 재판에 대해서는 홀(Sherwood Hall) 박사가 1936년도에 발행한 쌀 소형시트 뒷면에 별도로 이를 해설하여 처음 알려지게 되었다. 초판이 재판보다 크기는 약간 작으며 어둡게 보이는 반면 재판은 다소 크며 밝게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 초판 (그림1)과 재판 (그림2)의 비교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초판]	[재판]
① 인면 크기	30mm×24mm	31mm×24.6mm
② Gutter(쌀 간격)	4.3mm	3.2mm
③ 테두리선(인면)	암적색	주홍색
④ 인면의 명암	전체적으로 어둡게 보인다.	전체적으로 밝게 보인다.
⑤ 날의 배경색	다갈색	오렌지색
⑥ 영문 글꼴	가늘다	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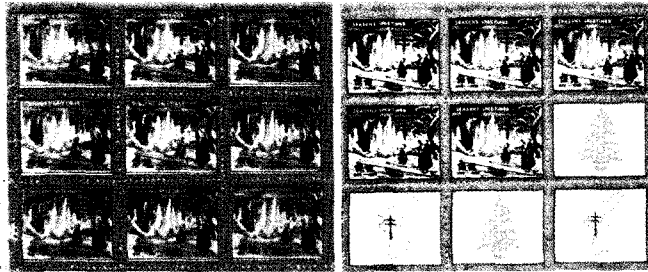
[그림1] 초판 쌀



[그림2] 재판 쌀

1935년의 쌀 연관자료

1935년의 쌀첩 ☉ 1935년 쌀의 가장 큰 특징은 쌀첩 및 이를 구성하는 Pane의 형태가 매우 독특하다는 것이다. 1935년의 경우는 유일하게 쌀첩 Pane의 장수가 6장이며 (다른 쌀첩은 5장임), 각 Pane은 3×3의 9개의 쌀로 되어 있다. 홀 박사는 50개의 쌀을 만들기 위해 'Pane 5장 × 쌀 9개 = 45개'이므로 마지막 Pane 1장은 5개의 칸은 쌀을 배치하고 나머지 4개의 칸은 탭(Tab; 한반도 지도와 크리스마스 트리)으로 처리한 기발한 발상의 쌀첩을 제작하였다. 그러나 홀 박사는 이를 탭이라 하지 않고 프로파간다 씨(Propaganda seal)이라고 하였으며 쌀첩 1권(50매쌀)을 1원에 판매하였다. 모든 쌀첩의 Pane의 상변지와 하변지는 천공이 없으나 필자가 입수한 (그림3)의 경우는 하변지에 천공이 있으며 (그림4)의 경우는 상변지에 천공이 있는 매우 희귀한 Pane이다. 쌀첩 및 Pane의 경우도 쌀과 마찬가지로 초판과 재판의 2종류가 있는데, 쌀첩 겉표지의 경우 초판은 세로가 89mm이고(재판과 크기가 동일한 것도 있음) 바탕색은 황록색이며, 재판은 세로가 91mm이며 바탕색은 올리브색이나 육안으로는 식별이 매우 어렵다.



[그림3] 1-5쪽의 페인

[그림4] 마지막 6쪽의 페인

1935년의 쌀 카드 및 엽서 ☉ 1935년의 쌀엽서는 카드형(뒷면이 백판)과 엽서형(뒷면에 영어와 일어로 엽서 표기)이 있으며 카드형(그림5)의 경우는 복십자 마크가 없으며, 엽서형의 경우는 그림만 있는 대형(그림6)과 글자도 있는 소형엽서(그림7)의 2종류가 있다.



- 1 [그림5] 싹 카드
- 2 [그림6] 싹 대형엽서
- 3 [그림7] 싹 소형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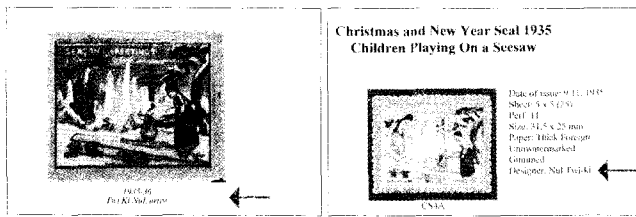
엽서형은 모두 복십자 마크가 있고 2매를 5전에 판매하였으며 엽서 뒷면에 우표를 첨부(貼付)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싹 연하장(목판화), 싹 폴더(Folder; 반으로 접어 속에 크리스마스카드를 넣거나 직접 글을 쓸 수 있는 용도로 종이와 섬유들이 얽은 한지이다) 등의 관련 자료가 있다.

널뛰기에서 두 명의 여자들 사이에 있는 어린이의 손 모양이, 싹이나 연하장에서는 오른손을 높이 들고 있으나 엽서 및 카드와 포스터에서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널뛰기의 인체 판형이 동일한 판형이 아니라 품목에 따라 판형을 다르게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도안자에 대한 오류

홀 박사로부터 시작한 오류 ❉ 홀 박사는 일제시대 발행된 싹의 도안자에 대한 회고를 자신의 자서전(With stethoscope in Asia : KOREA) 451쪽에서 “이제는 저명한 화가들이 자진해서 그들의 싹 도안 작업을 해 주겠다고 나섰다. 그 중에 영국인 화가 Elizabeth Keith는 1915년부터 1925년까지 10년간 동양의 디자인을 공부하였다. (중략) 또 다른 2개의 싹 도안은 20대 후반의 젊은 조선 화가인 김기창이 디자인했으며 그는 네 살 때 귀가 먹고 말도 못하게 되었다. (중략) 평양의 조선인 화가 Mr. Twi Ki Nui과 호주의 장로교 선교사인 Esmond W. New 목사가 2개의 싹을 도안해 주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박사가 자서전을 저술한 시기는 85세(1893.11.10 출생)가 되는 1978년으로 조선을 떠난 지 38년 후가 된다. 따라서 자서전은 박사가 약 40여 년이나 지난 오랜 전의 일을 회고하는 관계로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1935년 싹을 디자인한 화



[그림 8] 스미소니언 협회의 유인물 자료

[그림 9] 하세가와 도감

가를 “널뛰기씨(Mr. Twi Ki Nul)”라고 기록한 것이다. 조선에서 출생한 최초의 서양인으로 한국어가 매우 유창한 홀 박사가 널뛰기라는 단어를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쓸 도안자를 Mr. Twi Ki Nul이라고 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로 인하여 서양에서 발간되는 조선에 대한 모든 썸 자료는 1935년 썸 도안자를 “Twi Ki Nul”로 기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외국의 조선 썸 자료 오류 ㉞ 박사는 소장한 모든 썸 자료를 말년인 1972년에 스미소니언(Smithsonian)박물관에 기증하였으며 이에 스미소니언협회(Smithsonian Institute)에서는 일제시기 한국의 크리스마스 썸을 2배 크기로 확대 인쇄한 유인물을 증정용으로 제작하였다. 이는 박사의 영문 자서전 454~455쪽에 2쪽 분량으로 수록되어 있으나 자서전에는 1940년의 썸 사진은 누락되어 있다.

필자가 입수한 스미소니언협회에서 발행한 조선의 썸 유인물은 유백색(乳白色)의 전용봉투에 담은 3쪽의 칼라 인쇄물로써, 1940년 도안은 초판(대문 없는 미발행 썸)과 재판(대문 있는 썸)이 인쇄되어 있으며 1935년의 썸 도안자 역시 (그림8)과 같이 “Twi Ki Nul, artist”로 기록하고 있다.

썸 자료를 수록한 외국자료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린 카다록(Green's Catalog of TB Seal of the World)으로 이는 Dick Green이 1930년 처음 발행한 것으로 전 세계의 썸을 수록한 도감이다. 그러나 그린 카다록의 경우에는 전 세계의 썸을 수록한 관계로 썸 도안자의 이름이 게재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홀 박사가 조선의 썸을 알리기 위하여 Green에게 편지를 보낸 실체가 1994년 2월 “한국 크리스마스 썸 수집회” 회보에 게재된 것으로 보아 박사는 조선의 썸을 알리기 위해 관련자료를 Green에게도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외국의 경우는 결핵퇴치 이외에 다양한 종류의 썸을 발행하고 있으며 결핵퇴치를 위한 썸을 특별히 TB(Tuberculosis) 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구한국 우표의 세

계적인 권위자인 미국의 저클(Helen K Zirkle)여사가 발간한 한국의 쉘 카다록(The X-MAS TB Seal of Korea)에서도 1935년도 쉘 도안자를 "Twi Ki Nul"로 기록하고 있다. 홀 박사의 일제시기 쉘에 대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하세가와(Stephen Hasegawa)가 발간한 카다록 역시 1935년 쉘 도안자를 (그림9)와 같이 "Designer : Nul Twi-Ki"로 기록하고 있다.

1935년 쉘 도안자의 고증

국내의 경우는 1987년 한국우표도감(우문관 발행)에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쉘을 소개하고 1935년 쉘 도안자를 "김기창"이라고 잘못 기재하였으나, 이후 1990년 도감부터는 올바르게 수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월간 우표지 1987년 12월호에 우취가 이동성 님이 게재한 원고 『초기 X-MAS Seal의 도안에 대해서』 23쪽에서도 박사의 자서전 내용을 오인하여 1935년 쉘은 Esmond New 목사로, 1939년 쉘은 류영완(柳永完 ; 원고는 韓永完으로 표기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Esmond New 목사의 한국명이 류영완으로 이 역시 1935년 쉘 도안자에 대해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후 이를 공식적으로 바로 잡은 사람은 쉘 수집가인 고 이창성 님으로 당시 결핵협회 월간지인 보건세계에 연재중인 "한국의 크리스마스 쉘 아화" 4호(1990년 9월호)에서 쉘 도안자를 "최신영(崔信榮)"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이 국내외에서 1935년 쉘 도안자에 대해 수많은 오류를 범한 것을 단 한번으로 고증하여 바로 잡은 것은 무엇일까? 홀 박사는 홍보를 위하여 쉘 포스터를 제작하여 여러 단체에 무료로 배포하였으며 필자가 입수한 쉘 포스터(그림10)를 보면 인면속 우측 하단에 崔信榮이라고 화가의 서명(붉은 원 표시부분)이 세로로 써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자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 쉘 포스터는 소형(445×380mm)과 대형(445×600mm)의 2종류가 있고 모두 최신영이라는 서명이 있으며 입수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림10)의 대형포스터 사진은 결핵협회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1993년 결핵협회에서 발행한 "한국의 크리스마스 쉘" 단행본 23쪽에도 수록되어 있다.

화가 최신영

그렇다면 1935년의 쉘을 도안한 최신영(崔信榮)은 누구인가? 최신영은 일제시기 평양에서 활동한 화가로서 1926년부터 1929년 무렵까지 활발했던 평양의 미술단체인

- 1 [그림 10] 대형포스터
(445×600mm)
- 2 [그림 11] 대동강
(최신영 입선작)



삭성회(朔星會) 소속 멤버이며 1927년 삭성회 제2회 미술전람회에서 대동강을 그려 입선한 당시 청년 화가이다. 홀 박사는 황해도 해주에 거주하였기에 북쪽의 평양에 있는 청년화가 중 한사람인 최신영과 어떠한 인연으로 교분을 갖게 되어 썸 도안을 부탁한 것으로 추정된다.

삭성회는 1925년 7월 평양에서 결성된 미술가 단체로서 회화연구소를 운영하여 근대 미술의 보급과 평양지역의 미술진흥에 크게 기여했으며 1926년부터 자체전람회를 개최하였고 1930년대 초에 해체되었다. 최신영은 제2회 삭성회 주최 전람회에서 (그림 11)의 대동강으로 입선을 한 화가로 평양의 대동강을 그린 화가가 거의 없기에 최신영의 대동강은 매우 귀한 작품에 해당된다. 최신영의 작품집으로는 1937년 최신영 가문에서 직접 출판하여 제작한 가로형태의 32쪽 영문판 화첩(Korean ways by Sin Young Choy)이 있으며 동 화첩에는 당시 일반인들의 생활 모습을 그린 작품을 칼라로 인쇄한 15장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 최신영의 작품으로는 전해지는 것이 거의 없으나 1935년 도안인 널뛰기의 썸, 엽서, 연하장, 포스터 등도 최신영의 화풍과 작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7

참고문헌

- Stethoscope in ASIA : KOREA (Sherwood Hall) 1981년
- The X-MAS TB Seals of KOREA (Helen K Zirkle) 1966년 KOREA Stamp Society
- Dr. Sherwood Hall's X-MAS & new year seals of Korea (Stephen J. Hasegawa) 2006년
- 크리스마스 썸 야화(이창성) 보건세계
- 월간우표 (한국우취연합) 1987년 12월호
- 한국의 크리스마스 썸 단행본 (1993년) 대한결핵협회

이 글을 쓴 남상욱님은 썸 수집가로 서초우취회 부회장
및 우리협회 썸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